

일본 나라현-한국 충청남도 · 일본 나라현-중국 산시성
관련이 깊은 지역 소개



일본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 · 일본 나라현과 중국 산시성이 우호 제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은 일본 나라현이 한국 충청남도, 중국 산시성(섬서성)과 2011년에 각각 우호 제휴를 맺은 지 1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나노라' 제 15호에서는 지금까지 해 온 우호 교류, 충청남도와 산시성 소개, 나라현 내에 있는 한국, 중국과 관련이 깊은 지역을 각각 소개합니다.

목차

지금까지의 교류	1p	간고지 절 · 한나지 절	8p
한국 충청남도 · 중국 산시성 소개	2p	헤이조쿄	9p
아스카데라 절	3p	미카사야마 산	10p
다카마쓰즈카 고분 · 다카마쓰즈카 벽화관	4p	정창원 · 나라국립박물관	11p
이시부타이 고분 · 아카카시노오카 언덕	5p	도쇼다이절 절	12p
아스카 자료관	6p	다카마쓰즈카 고분 · 기토라 고분	13p
호류지 절 · 주구지 절	7p	야쿠시지 절	14p

지금까지의 교류

나라현은 지금까지 한국 충청남도, 중국 산시성과 지사 상호 방문, 차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 교류, 문화재 보호 등 전문 분야 교류,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등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라현 우호 교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양성 사업

2013년부터 국제 교류와 이문화 이해에 관심이 있는 나라현 청년이 충청남도와 산시성을 방문하여, 현지 학생들과 교류 및 나라현과 관련이 깊은 지역을 시찰 등을 통하여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한일 문화 카라반 in 나라

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2019년 처음으로 나라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양국의 전통 공연 무대 등을 통해 약 1,500명의 방문객이 문화 교류를 즐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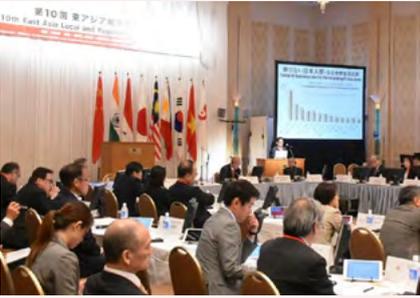
전문 분야 교류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의 연구자를 산시성 서북대학에 여섯 차례 파견하여 문화재 보호 등 전문 분야의 기술 교류를 진행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충청남도, 산시성이 참가하여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충청남도는 어떤 곳?

한국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면적 약 8,226 km² (2018년 기준), 인구 약 212만 명 (2020년 기준)의 도시입니다.

충청남도는 백제 (기원전 18~660년)의 수도가 위치했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는 수도를 현재의 공주시인 웅진에서 현재의 부여군인 사비로 옮겼으며, 사비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현존하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등의 백제 시대 역사문화유산으로 구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충청남도는 역사적 유산이 다수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굴지의 제조회사가 도내에 위치하여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농어업 및 축산업도 활발하며, 주요 특산품으로는 인삼, 딸기, 김, 한우 등이 있습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중국 산시성은 어떤 곳?

중국 산시성은 중국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면적 약 205,800 km², 인구 약 3,864만 명 (2019년 기준)의 지역입니다. 또한, 예전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 있었던 '중국 실크로드의 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실크로드: 창안 - 텐산 회랑 도로망'의 구성 자산 중 하나인 현장삼장과 연관이 있는 대안탑과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장안성의 고성벽 등 지금도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관람하러 찾아오는 역사 유적이 성도 서안(시안)뿐 아니라 산시성 내에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안은 최근 몇 년 사이 물류의 거점으로 발전해, 특히 서안항은 서안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 국내 최대의 철도로 이어진 국제내륙항입니다.

현대에도 지난날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해 온 점이 나라현과의 공통점 중 하나가 아닐까요.



산시성 진시황릉과 병마용갱



산시성 시안시 고성벽

나라(奈良)와 한국의 인연을 잇는 지역을 찾아가다

나라는 고대부터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지금도 나라 현 내에는 한일 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토기 제작, 농공 기술, 토목 기술, 직물 짜기, 한자, 불교 등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일본으로 전해준 사람들을 '도래인' 이라고 합니다. 특히 4 세기에서 7 세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이 많았습니다. 도래인은 7 세기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스카 지역 (현재의 아스카무라 주변)'은 '도래인의 제 2의 고향'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가 2011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지금부터 나라현 내에 있는 한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충청남도와의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아스카데라 절(飛鳥寺)

백제의 기술자들이 건립에 기여한 일본의 첫 불교 사원

일본서기에 의하면 아스카데라 절은 588년 소가노 우마코(?~626년)가 건립을 발원하여, 596년에 완성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불교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카데라 절의 건립에 백제에서 파견된 승려, 불사(불상 제작 기술자), 사공(절 건축 기술자), 노반박사, 와박사가 기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가람배치 구도의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카데라 절의 가람배치는 탑을 중심으로 동쪽, 북쪽, 서쪽으로 금당이 배치된 양식입니다. 이 배치는 고구려의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신라의 황룡사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아스카데라 절의 본존인 동조석가여래좌상(아스카 대불)은 7세기 초기에 도래계인 구라쓰쿠리노 도리(鞍作止利)가 제작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입니다.



아스카데라 절 입구(정면)

현재 아스카 대불은 헤이안, 가마쿠라 시대의 대화재로 전신에 화재를 입어 보수된 것이나, 가름한 얼굴 생김새와 아몬드형 눈매에서 아스카 조각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스카 대불

현재 아스카데라 절은 1987년부터 한국 충청남도 예산군의 수덕사와 결연하여 자매 사원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스카데라 절에서는 수덕사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자료와 교류 사진, 한국어로 쓰여 있는 반야심경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수덕사 자매결연
관련 자료



한국어로 쓰여 있는
반야심경

아스카데라 절에는 오랜 옛날부터 한국과의 인연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 나라의 교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아스카데라 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스카데라 절

- 주소 : 〒 634-0103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아스카 682
- 오시는 길 : 킨테쓰 가시하라진구마에역 동쪽 출구에서 버스 '아스카 다이부쓰마에' 에서 하차

다카마쓰즈카 고분·다카마쓰즈카 벽화관

벽화로 알 수 있는 문화적 교류

나라현 아스카무라에 있는 다카마쓰즈카 고분은 1972년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실 내에 극채색의 벽화가 발견된 일본을 대표하는 벽화 고분 중 하나로, 벽화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발굴 조사에 의해 후지와라쿄 시기(694~710년)의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매장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는 석실의 동쪽, 서쪽, 북쪽 벽과 천장의 네 면에 존재하며, 마름돌에 수mm 두께로 회칠을 한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동쪽 벽에는 사신 중 하나인 청룡, 해, 남자 군상, 여자 군상이 그려져 있으며, 서쪽 벽에는 사신 중 하나인 백호, 달, 남자 군상, 여자 군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高松塚古墳壁画 西壁女子群像(模写)
(公財) 古都飛鳥保存財団 提供

또한, 북쪽에는 사신 중 하나인 현무가 그려져 있으며, 천장에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원형의 금박으로 별을 표현하고, 별과 별 사이를 붉은 선으로 연결하여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쪽 벽의 '여자 군상'은 색채가 선명하고 '아스카 미인'이라는 이름으로도 친근한 벽화입니다. 또한, 그 구조와 인물 군상의 복장이나 손에 든 물건이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당나라 영태공주묘의 벽화와 비슷합니다. 게다가 여인의 복장에서 일본식 요소도 보이므로 당시 고구려, 당나라, 일본 간 문화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벽화는 1년에 몇 차례만 공개하고 있으나, 고분 가까이 있는 '다카마쓰즈카 벽화관'에서 발견 당시의 벽화를 충실히 재현한 현상 모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현 벽화뿐만 아니라 석곽의 모형과 부장품의 모조품 등을 전시하고 있어, 다카마쓰즈카 고분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카마쓰즈카 벽화관 내부(전시 모습)

다카마쓰즈카 고분은 1400년이나 전에 그려진 벽화와 출토품을 통해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의 교류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입니다. 아스카무라에 가실 때는 다카마쓰즈카 고분과 다카마쓰즈카 벽화관에도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카마쓰즈카 벽화관

- 주소 : 〒 634-0144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히라타 439 (국영 아스카 역사 공원 내)
- 오시는 길 : 긴테쓰 아스카역에서 도보 15분



• 다카마쓰즈카 고분 홈페이지
<https://www.asuka-park.go.jp/area/takamatsuzuka/tumulus/>

• 다카마쓰즈카 벽화관 홈페이지
<http://www.asukabito.or.jp/hekigakan.html>



이시부타이 고분

계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고분

국영 아스카 역사 공원 내 이시부타이 주변 지구 중앙에는 30여 개의 바위로 만들어진 거대한 고분인 '이시부타이 고분'이 있습니다. 매장된 인물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의 권력자인 소가노 우마코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시부타이 고분

이시부타이 고분은 널방의 길이 7.7m, 폭이 약 3.5m, 높이 4.7m, 바위의 총 중량이 약 2,300t으로, 그 크기에서 축조 당시의 훌륭한 토목 기술과 운반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봉분의 성토가 유실되어 거대한 양수식의 횡혈식 석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분형은 방분 또는 상원하방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시부타이 고분 석실 입구

상원하방분은 백제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고분의 묘제로 알려져 있어, 이시부타이 고분도 백제 석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실 안으로 들어갈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들어가 보았는데 그 거대한 크기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매장자는 확실하지 않으나, 당시 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의 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시부타이 고분은 계절마다 다른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주변에 벚꽃이 피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이시부타이 고분에서 고대 아스카의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이시부타이 고분의 봄 풍경
(사진 제공 : 아스카무라 교육위원회)



이시부타이 고분

- 주소 : 〒 634-0112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시마쇼 133
 - 오시는 길 : 버스 '이시부타이' 에서 하차 도보 3분
- <https://www.asuka-park.go.jp/area/ishibutai/tumulus/>

아마카시노오카 언덕 (아마카시노오카 전망대)

아스카무라의 봄에는 이곳도 추천합니다 !

아스카의 중심에 있는 표고 148m의 완만한 언덕인 '아마카시노오카' 언덕에서는 아스카무라와 후지와라 궁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마토 3산으로 불리는 가구야마(香具山), 우네비야마(畝傍山), 미미나시야마(耳成山) 산을 멀리 내다 볼 수 있으며, 부근 일대는 아스카 역사 공원 아마카시노오카 지구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 언덕에 올라 아스카의 풍경을 바라보며 읊은 다수의 시가 만엽집에 남아 있으며, 지금도 만엽집에 나오는 벚꽃과 자두꽃 등의 만엽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카시노오카 언덕에 올라 아스카의 경치를 바라보며 옛날 아스카인이 된 기분을 느껴보세요.



아마카시노오카 언덕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 제공 : 국영 아스카 역사 공원)

아마카시노오카 언덕

- 주소 : 〒 634-0107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도요우라
- 오시는 길 : 버스 '아마카시노오카' 에서 하차 도보 10분

1400 년 전 아스카를 가까이 느끼다

아스카는 지금으로부터 1400 년 전, 약 100 년간 수도였던 곳으로, 일본의 국가와 문화의 기초가 만들어진 장소이자 대륙에서 전해진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최초' 의 것이 많이 탄생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현 아스카무라에 있는 '아스카 자료관' 에서는 아스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아스카무라에 남아 있는 '아스카' 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스카의 역사와 한국과의 관련성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아스카 자료관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아스카 자료관 인터뷰

Q1. 아스카 자료관에서는 1 년에 몇 번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나요?

A1. 1 년에 1~2 회, 봄과 가을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다카마쓰즈카 고분이나 아스카의 석조물 등 대표적인 주제에 더해, 아스카의 고사진과 고지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스카를 소개해 왔습니다.



'되살아나는 아스카의 공방 -한일 기술 교류를 더듬어 보다-' 전시실 모습

Q2. 2018 년부터 '되살아나는 아스카의 공방 - 한일 기술 교류를 더듬어 보다 -' 라는 특별전이 개최되었는데 이 특별전을 기획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또한, 전시물이나 문헌 등에서 한일 교류의 증거나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성 등을 잘 알 수 있는 물건이 있나요?

A2. 아스카이케 공방 유적의 조사 성과를 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출토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나라 문화재연구소와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문화 교류와 기술 교류의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넓은 관점에서 아스카 역사를 소개하였습니다.

한일 교류를 보여주는 한 예로써 유리 제작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아스카이케 공방 유적에서는 유리 재료를 녹이기 위한 '도가니' 가 출토되었습니다. 사실 이 도가니의 형태는 한국의 백제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의 유리 공방에서 출토된 도가니와 매우 흡사합니다. 백제와 아스카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Q3. 아스카무라에는 한국과 관련 깊은 곳이 많이 남아있으며, 특히 아스카데라 절과 다카마쓰즈카 고분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한국과 관련이 있는 장소나 유적 등이 있나요?

A3. 아스카 자료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마다데라 절 동회랑에서 대륙으로부터 전해진 사원 건축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을 만드는 기술, 예를 들어 지반의 개량이나 석재의 가공, 기와를 만드는 기술은 대륙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또한, 아스카에 산재하는 사루이시 (원숭이를 조각한 돌) 와 가메이시 (거북이를 조각한 돌) 등 재미있는 석조물도 한국과 관련 있는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Q4. 최근 몇 년간 진행하고 있는 아스카에 관한 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한, 앞으로 실시 예정인 전시나 행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A4. 아스카 지역의 출토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카 지역의 경관 변천을 밝히기 위해 고사진과 고지도, 취락 조사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일부는 '아스카의 원풍경', '아스카 - 자연과 사람 -' 등의 특별전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들 전람회의 도록은 현재도 입수 가능하므로 관심이 있는 분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기와도 계속해서 조사 중입니다. 그 결과의 일부는 2021 년 가을 특별전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스카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원이 건립된 땅이며, 기와의 변화에서 일본에 불교가 널리 퍼진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가을 특별전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스카 자료관에서는 교과서에도 실려 잘 알려진 화폐 '후혼센' 의 실물과 다카마쓰즈카 고분 석실의 모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스카를 둘러보실 때 가장 먼저 아스카 자료관에서 아스카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이해하신 후 아스카무라를 둘러보십시오. 아스카무라의 농촌 풍경이 '일본의 시작' 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풍경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카 자료관

• 주소 : 〒 634-0102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오쿠야마 601

• 오시는 길 : 버스 '아스카 시료칸' 에서 하차 <https://www.nabunken.go.jp/asuka/>



호류지 절(法隆寺)

불교 건축과 불교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관련성①

나라현 이카루가초에 있는 호류지 절은 백제에서 불교가 전해진 후, 불교를 널리 퍼뜨려 국가의 기초를 다진 쇼토쿠 태자(성덕태자)와 관련이 깊은 사원입니다. 601년 쇼토쿠 태자가 이카루가의 땅에 이카루가 궁을 짓고, 607년 무렵, 가까운 곳에 돌아가신 아버지 요메이 천황을 위해 건립한 것이 호류지 절(이카루가데라 절)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670년 창건 시의 가람은 소실되었으며, 얼마 후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호류지 절과 호키지 절은 1993년 '호류지 지역의 불교건축물'로 히메지 성과 함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조 건물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류지 절

서원(西院) 가람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금당 중앙에는 국보 '석가삼존상', 동쪽에는 국보 '약사여래상', 서쪽에는 중요문화재 '아미타삼존상'이 각각 안치되어 있습니다. '석가삼존상'은 도래계인 '구라쓰쿠리노 도리'가 제작했음이 광배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대보장원에 안치된 국보 '백제관음'과 '옥충주자'는 일본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 관음은 어디서 제작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본 국내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름에서 백제와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충주자는 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감실을 비단벌레(옥충)의 아름답게 반짝이는 날개로 장식한 것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며, 비단벌레를 이용한 고대 공예품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당시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류지 절

- 주소 : 〒 636-0115 나라현 이코마군 이카루가초 호류지산나야 1-1
 - 오시는 길 : JR 호류지역에서 도보 약 20분 또는 버스 '호류지 산도'에서 하차
- <http://www.horyuji.or.jp>



주구지 절(中宮寺)

불교 건축과 불교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관련성②

호류지 절 근처에는 쇼토쿠 태자가 어머니인 하시히토 황후를 위해 건립한 주구지 절이 있습니다. 본존인 국보 '목조보살반가상'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의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미륵신앙이 널리 유행했던 한반도에서 미륵보살의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지고, 일본에도 그 문화가 전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구지 절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자수 유물로 잘 알려진 국보 '천수국만다라수장'이 있습니다.※1 이 자수 휘장은 쇼토쿠 태자의 서거 후, 부인인 다치바나노 오이라쓰메가 궁중의 궁녀들에게 명하여 태자가 왕성한 천수국이라는 정도의 모습을 수놓은 것입니다. 그림 안에는 한 마리의 거북에 네 글자씩 '부간인공(部間人公)' 등의 문자를 표현하여 400자의 명문이 수놓여 있습니다. 그 전문은 '상궁성덕법왕제설'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제작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한반도에서 도래한 고구려 출신의 화공 '가서일'의 이름이 있습니다.

※1 본당에 안치된 것은 복제품으로, 실물은 나라국립박물관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국보 목조보살반가상
(사진 제공 : 나라국립박물관)

이처럼 고대부터 전해온 불교 건축과 불교 조각 등을 통해서 옛날부터 한일 간 깊은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카루가의 땅에 세워진 절, 호류지와 주구지에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주구지 절

- 주소 : 〒 636-0111 나라현 이코마군 이카루가초 호류지키타 1-1-2
 - 오시는 길 : JR 호류지역에서 도보 약 15분 또는 버스 '호류지 산도'에서 하차
- <http://www.chuguji.jp>



간고지 절(元興寺)

아스카 시대에 제작된 일본 최초의 기와가 남아있는 절

나라시 내에 있는 간고지 절은 일본에서 첫 본격적 가람이라고 불리는 아스카데라 절 (호코지 절) 이 헤이조 천도와 함께 신축 이전한 것입니다.

일본서기에는 아스카데라 절 건립에 백제에서 승려와 사공 (절 건축 기술자), 노반박사, 와박사, 화공 등의 기술자를 파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와박사가 만든 일본 최초의 기와가 절이 이곳으로 신축 이전했을 때 함께 옮겨져, 지금까지도 극락당 (본당) 과 선실의 지붕에 수천 장 남아 있습니다.



극락당과 선실의 지붕

1998년에는 나라시 내에 있는 8 개의 신사와 절로 구성된 '고대 나라의 문화재' 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그 중 간고지 극락방 경내의 옛 승방의 유구 (遺構) 인 국보 '극락당' 과 국보 '선실'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락당과 선실

또한, '삼국불법전통연기' 에는 아스카데라 절 (호코지 절) 에 살았다고 하는 고구려의 승려 혜관 (慧灌) 법사가 중국의 승려 가상대사 (길장) 에게 삼론을 배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최초로 삼론종을 전했다고 합니다.

간고지 절을 실제로 찾아갔을 때, 선인들의 훌륭한 기술이 지금까지도 살아 숨 쉬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간고지 절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지요.

간고지 절

- 주소 : 〒 630-8392 나라현 나라시 주인초 11
 - 오시는 길 : 긴테쓰 나라역에서 도보 15 분 또는 버스 '후쿠치인초' 에서 하차 도보 5 분
- <https://gangoji-tera.or.jp>



한냐지 절(般若寺)

고구려의 혜관 법사가 창건한 역사 깊은 절

나라시 내에는 고구려에서 도래한 승려인 혜관 법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한냐지 절이 있습니다. 한냐지 절은 봄에는 황매화 나무와 벚꽃, 여름에는 초여름 코스모스와 수국,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석산, 겨울에는 수선화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이 피며, 그중에서도 여름과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의 명소로도 잘 알려져 '코스모스 절' 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코스모스와 수국이 피는 6 월에 한냐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내에 핀 코스모스와 둥근 유리병에 띄워 놓은 수국이 화사하고 예뻐했습니다.

또한, 한냐지 절의 누문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누문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누문은 헤이안 시대 말기 (12 세기 말) 전쟁으로 인한 방화로 소실된 가람을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년) 에 재건할 때 건립되어, 그 후 전쟁에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기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역사 깊은 절과 사계절을 물들이는 꽃을 보러 가 보시는 건 어떨지요.



한냐지의 코스모스(2020년 11월 촬영)

한냐지 절

- 주소 : 〒 630-8102 나라현 나라시 한냐지초 221
 - 오시는 길 : 버스 '한냐지' 에서 하차 도보 3 분
- <http://www.hannyaji.com>



나라(奈良)와 중국의 인연을 잇는 지역을 찾아가다

올해는 나라현과 중국 산시성(섬서성)이 2011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지금부터 나라현 내에 있는 중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산시성과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헤이조쿄(平城京)

당나라 장안성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 시대의 수도

나라 시대(710~784년)의 수도였던 헤이조쿄는 당시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현재의 산시성 시안시)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장안성과 비슷한 점으로는 ①궁전의 위치, ②정원을 만드는 궁전 건설의 사상, ③기능별 건축물의 배치, ④당삼채 기술을 도입한 녹유기와 사용 등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작문 앞에 선 필자

한편, 헤이조쿄와 장안성은 서로 다른 점도 있어, 가장 큰 차이로 성벽의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장안성에는 성벽이 세워졌으나, 헤이조쿄에는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산시성 시안시에는 전체 길이(중심선) 약 13.7km, 높이 약 12m, 폭 약 12~14m에 달하는 오래된 성벽이 남아있어 관광객과 시안 시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산시성 시안시 고성벽
(사진 제공 : 산시성 인민대외우호협회)

헤이조쿄의 현재

헤이조쿄 궁전지구에 있는 헤이조 궁터는 1952년에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5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0년에 걸쳐 계속 발굴 조사가 진행되어, 1998년에는 헤이조 궁터를 포함한 '고도 나라의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나라현을 방문하여, 나라현에 '우애의 배'와 '감진화상 조각상'을 증정하였습니다. 지금은 헤이조궁 유적 역사공원의 덴표 우마시관에 전시되어 많은 분이 보러 옵니다.

또한, 헤이조궁 유적 역사공원 스자쿠몬 광장에는 장안에 파견되었던 견당사가 탔던 '견당사선'의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원 견당사선
(사진 제공 : 현영 헤이조궁 유적 역사공원 지정 관리자)

저는 산시성 시안시의 고성벽에서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또, 2020년 가을에는 '헤이조 궁터 연날리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두 지역과 연관이 깊은 지역인 산시성 시안시의 고성벽과 나라현의 헤이조 궁터가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매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헤이조궁 유적 역사공원

• 주소 : 〒 630-8012

나라현 나라시 니조오지 미나미 4-6-1

• 오시는 길 :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약 20분 또는 버스 '스자쿠몬 히로바마에'에서 하차



미카사야마 산

아베노 나카마로가 읊은 시에 등장하는 미카사야마 산

나라현 출신의 건당사 아베노 나카마로 (698~770년)로 말하자면, 백인일수(100명의 시인의 와카를 한 수씩 집대성한 와카 시집)의 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듯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머나먼 곳을 바라보자니, 예전 미카사야마 산의 달과 같은 것이로구나.”라고 고국을 그리워하던 아베노 나카마로가 읊은 ‘망향’은 중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건당사는 중국 당나라(618~907년)에 파견된 사절로, 당시 선진국이었던 당나라 문화와 제도를 현지에서 배워 일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베노 나카마로는 건당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717년 당나라 장안(현재 산시성 시안시)에서 유학하여 당나라 관료가 되었으며, 753년에 드디어 당나라 황제에게 귀국을 명받았을 때 읊은 것이 이 시입니다. 그 후,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한 아베노 나카마로였으나, 결국 귀국하지 못한 채 당나라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베노 나카마로 노래비(가스가타이샤 신사)

나라현 내에는 ‘미카사야마(三笠山)’와 ‘미카사야마(御蓋山)’ 두 개의 ‘미카사야마’ 산이 있는데, 아베노 나카마로가 읊은 시에 등장하는 것은 ‘미카사야마(御蓋山)’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건당사는 당나라로 건너가기 전에 미카사야마 산을 향해 안전한 항해길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가스가타이샤 신사 창건 신화의 무대이기도 한 미카사야마 산은 현재 내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뒤쪽 밝은 부분이 미카사야마 산

산시성과 나라현에 세워진 아베노 나카마로의 노래비

산시성 시안시의 흥경궁 공원(당나라 장안성 흥경궁 유적에 조성된 공원)에는 ‘아베노 나카마로 기념비’가 있어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라현에서는 산시성과 우호 교류의 일환으로 국제 교류 등에 관심이 있는 나라현 청년이 산시성을 방문하는 ‘우호 교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번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아베노 나카마로 기념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차세대 양성사업 때 방문한 아베노 나카마로 기념비 앞에서 기념 사진

나라현 내에도 아베노 나카마로의 노래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는 제가 둘러본 3곳의 노래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스가타이샤 신사(나라시)에 있는 노래비입니다. 시와 관련 있는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노래비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독지가가 2015년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봉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베노 나카마로의 탄생지로 알려진 아베몬주인(사쿠라이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시대 ‘헤이조쿄’ 스자쿠몬에서 4km 남쪽에 있는 라조몬 유적공원(야마토코리야마시)에도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중일 교류에 큰 공헌을 한 아베노 나카마로에 대한 마음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노래비를 둘러보면서 ‘망향’의 심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스가타이샤 신사

- 주소 : 〒630-8212 나라현 나라시 가스가노초 160
- 오시는 길 : 나라교통 버스 가스가타이샤 혼덴행 이용 ‘가스가타이샤 혼덴’에서 하차하면 바로

산시성 흥경궁 공원

- 주소 : 산시성 시안시 비림로 함녕서로 55호

정창원(正倉院)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에 있는 정창원

정창원(쇼소인)은 나라시의 동대사 대불전 가까이에 위치한 교창 구조의 대규모 고상식(高床式) 창고입니다.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의 관청과 대사원에는 정창(正倉)이라 불리는 곡물과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세월이 경과 함에 따라 사라져, 현존하는 동대사 절의 정창이 '정창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창원 정창 외관
(사진 제공 : 정창원 정창)

동대사의 정창원에는 쇼무 천황의 아내인 고묘 황후가 쇼무 천황의 유제품 등을 동대사 절의 본존 노사나불(대불)에 바쳤고, 그 물품들이 정창에 수장된 것을 포함하여 9,000 건에 달하는 물품이 수장되어 있으며, 그것을 정창원 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보물에는 일본 국내의 보물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에서 온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당나라의 수도 장안(현재 산시성 시안시)보다 더 서쪽의 페르시아, 천축(인도) 등에서 온 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국립박물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불상의 전당

1895년에 개관한 나라국립박물관은 동대사 절, 가스가타 이사 신사 등에 둘러싸인 나라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라국립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전람회와 갤러리, 공개강좌, 해설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장품 중에는 산시성 시안시 보경사 절에서 전해진 삼존불감 이외에도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최하는 많은 전람회 중에서 특히, 정창원 보물 중 수십 건 정도를 1년에 한 번 일반에 공개하는 '정창원전'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1946년부터 시작된 정창원전은 매년 약 1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2019년에는 누계 관람객 수가 천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정창원전은 나라국립박물관의 상징적인 전람회이자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지명도가 높습니다.



삼존불감
(사진 제공 : 나라국립박물관)

저는 휴일을 이용해 2019년 10월에 개최된 '제 70회 정창원전'의 해설 자원봉사자로서 당나라에서 전래한 보물을 포함한 총 56건의 정창원 보물에 관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일본어로 정창원전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중국 출신인 저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장안과 나라의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인연과 같이 앞으로도 고대부터 이어져 온 교류를 차세대에 이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당시의 필자

정창원 정창

- 주소 : 〒630-8211 나라현 나라시 조시초 129
- 오시는 길 : 긴테쓰 나라역에서 도보 약 18분



나라국립박물관

- 주소 : 〒630-8213 나라현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50
- 오시는 길 : 긴테쓰 나라역에서 도보 약 15분 또는 시내순환버스 '히무로 진자·고쿠리쓰 하쿠부쓰칸마에'에서 하차하면 바로



도쇼다이지 절(唐招提寺)

당나라 도래인 감진화상이 창건한 율종의 이름난 사찰

도쇼다이지 절은 나라시 니시노쿄에 있는 율종의 이름난 사찰로, 당나라 시대에 도래한 감진화상(688~763년)이 창건한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감진화상은 중국 양주(揚州) 출신으로 20~26세쯤 당나라 수도인 장안(현재 산시성 시안시)의 실제사(實際寺)와 정업사(淨業寺)에서 수행 등을 통하여 건축, 조각, 의약학,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시 가장 앞서갔던 당나라 문화를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시안 정업사
(사진 제공 : 정업사)

그 후, 수많은 고난의 끝에 일본에 도래한 감진화상은 승려 이외에도 뛰어난 장인과 예술가들과 동행하여, 일본에 한방약과 공예품 등을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도쇼다이지 절 건립에도 감진화상의 영향이 컸으며, 가람 배치, 건축기술, 삼채기와를 비롯한 건축재료 등을 통해 경내 곳곳에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대문에 걸려있는 편액(사원 문의 중앙 높은 위치에 거는 간판)은 당시에는 드물었던 행서체로 '唐招提寺(도쇼다이지)'라고 쓰여 있어 초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쇼다이지 절 금당
(사진 제공 : 일반재단법인 나라현 비지터즈 뷰로)

일본의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감진화상은 중국에서도 매우 유명한 위인 중 한 사람으로, 감진화상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도쇼다이지 절을 방문합니다. 또한, 감진화상의 기일에 맞추어 행해지는 감진화상 좌상 공개(매년 6월 5일~7일) 때는 많은 사람이 참배하러 오며, 오늘날에도 일본과 중국 양국에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국보 감진화상 좌상
(사진 제공 : 아스카엔)

마지막으로 도쇼다이지 절에 얽힌 중국과 일본의 우호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8세기 전반, 불교에 귀의하던 나가야 왕은 '국가는 다르지만, 하늘은 같다. 가사(승려가 입는 법의)를 승려에게 바쳐 연을 맺자.(山川異域 風月同天 寄諸仏子 共結來緣)'라는 의미의 한시를 수놓은 1,000 벌의 가사를 당나라에 보냈고, 그 중 한 벌을 받은 감진화상은 그 한시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일본에 건너갈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도쇼다이지 절에서는 2017년부터 감진화상과 인연이 깊은 정업사 절 등에 한시를 새긴 가사(오른쪽 사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양국 사원의 교류가 천 년 이상이 흐른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감진화상이 뿌린 '중일 외교'의 씨앗이 착실히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쇼다이지 절

- 주소 : 〒 630-8032 나라현 나라시 고조초 13-46
- 오시는 길 : 버스 '도쇼다이지'에서 하차



다카마쓰즈카 고분·기토라 고분

국보로 지정된 고분 벽화

다카마쓰즈카 고분은 나라현 아스카무라에 있는 고분으로, 197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석실에서 극채색의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1983년에는 같은 아스카무라에 있는 기토라 고분에서도 일본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극채색의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고분의 벽화에는 고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길한 동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청룡, 백호, 주작※1, 현무가 그려져 있어 고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다카마쓰즈카 고분의 주작은 도굴 시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高松塚古墳壁画 西壁女子群像(模写)
(公財) 古都飛鳥保存財団 提供

특히, 다카마쓰즈카 고분은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극채색의 벽화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고대사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급증하였고, 서쪽 벽에 그려진 '여자 군상' 등의 기념 우표가 발매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산시성 건릉(외관)
(사진 제공 : 중국 주오사카 관광 대표처)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관련성

한편, 중국의 고도 장안이 있던 산시성에도 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1960년부터 1962년에 발굴된 영태공주묘에 그려진 '궁녀도'는 다카마쓰즈카 고분 서쪽 벽에 그려진 '여자 군상'과 구도와 소지품이 비슷하여 당시 당나라와 일본 간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태공주묘 궁녀도(건릉박물관)
(사진 제공 : 산시성 인민대외우호협회)

나라현과 산시성은 현재까지 교류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 나라현립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와 산시성의 서북대학이 고고학 및 보존과학 등의 전문분야에서 연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 양국이 합쳐서 10명 이상의 연구원을 상호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역·번역 등 지원을 통해 이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문 교류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의 오랜 문화적 관련성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발견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카마쓰즈카 고분

- 주소 : 〒 634-0144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히라타 444
- 오시는 길 : 킨테쓰 아스카역에서 도보 15분 또는 버스 '다카마쓰즈카'에서 하차 도보 10분



기토라 고분벽화체험관 사신관

- 주소 : 〒 634-0134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아베야마 67
- 오시는 길 : 킨테쓰 쓰보사카야마역에서 도보 12분



야쿠시지 절(藥師寺)

현장삼장과 관련 깊은 야쿠시지 절

나라시 니시노쿄에 있는 야쿠시지 절은 아스카 시대에 창건되어 나라 시대에 헤이조쿄로 이 건된 사원으로, 남쪽의 '하쿠호(白鳳) 가람' 과 북쪽의 '겐조산조인(玄奘三藏院) 가람'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야쿠시지 절은 일반적으로 국보인 동탑(東塔) 등이 있는 남쪽의 '하쿠호 가람' 이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북쪽의 '겐조산조인(현장삼장원) 가람'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장탑

(사진 제공 : 일반재단법인 나라현 비지터즈 뷰로)

법상종과 겐조산조인 가람

법상종大本산의 하나인 야쿠시지 절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서유기' 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 모델로 잘 알려진 현장삼장(玄奘三藏; 602~664년) 과 관련이 깊은 사원입니다.

법상종은 현장삼장의 제자인 당나라의 자은대사(632~682년) 가 창시한 종파로, 653년에 당나라에 가서 현장삼장을 스승으로 모신 도소(629~700년) 를 비롯하여 당나라에서 유학한 승려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현장삼장은 17년에 이르는 인도 날란다 사원으로의 구법(불교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의 길을 구하는 것)의 길을 거쳐 많은 경전을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자로 번역한 경전 중에는 대승불교의 집대성이라 불리는 '대반야경' 과 오늘날에도 일본인에게 익숙한 '반야심경'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쿠시지 절에는 현장삼장의 유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1991년에 '겐조산조인 가람' 이 건립되었으며, 그 중앙에 있는 현장탑에는 현장삼장의 유골을 안치하여 현장삼장역경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당서역벽화

그 외에도 현장삼장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 그중 하나로 현장탑 북쪽에 있는 '대당서역벽화전' 을 들 수 있습니다.



대안탑 옆 현장삼장 동상
(사진 제공 : 중국 주오사카 관광 대표처)

대당서역벽화전에는 히라야마 이쿠오 화백이 약 20년에 걸쳐 약 4,000장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제작한 '대당서역벽화'의 세계가 펼쳐져 있으며, 그곳에는 7장면 13벽면, 전장 49m의 벽면에 현장삼장의 여행의 출발지인 장안에서 목적지인 날란다까지의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당서역벽화(히라야마 이쿠오 작품)
(사진 제공 : 야쿠시지)

저는 처음으로 대당서역벽화전을 견학하고 그 장대한 모습에 매우 감격했습니다. 또한, 그중에는 현장삼장이 날란다에서 가지고 돌아온 경전의 번역을 행한 자은사(산시성 시안시)의 대안탑도 그려져 있습니다. 나라현에서 모국의 대안탑 그림을 볼 수 있을 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람과 동시에 나라와 산시성의 인연이 깊음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쿠시지 절을 참배할 기회가 있으면 현장삼장의 위대한 업적을 느낄 수 있는 '겐조산조인 가람' 을 꼭 둘러보세요.

야쿠시지 절

• 주소 : 〒 630-8563

나라현 나라시 니시노쿄초 457

• 오시는 길 : 긴테쓰 니시노쿄역에서 도보 1분 또는 버스 '야쿠시지' 에서 하차 도보 4분



'나노라'란?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라현 국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기 위해 매일 국제교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현민 여러분과 해외에서 오신 방문객들께 소개하기 위해, 저희가 나라현에서 찾은 매력과 흥미로운 곳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쓴 것입니다. 이 정보지를 통해 나라현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후기

남현정 (Hyunjung Nam)

옛날부터 한국과 나라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현은 옛날부터 한국과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라현 내에는 한국과 관련 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어, 옛날 국제교류의 흔적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노라'의 취재를 통해 서적이거나 사진으로만 봐왔던 한국과 나라의 관련 깊은 지역을 실제로 둘러보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견학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지를 보시는 여러분도 꼭 한국과 나라현의 인연이 깊은 지역을 방문하셔서 고대 나라의 모습과 선인의 생활 등을 상상하며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스카무라 이시부타이 고분에서

오춘란 (Chunlan Wu)

중국에서 친구가 나라를 방문하면 대부분이 '나라는 옛날 중국과 비슷하다' 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쇼다이지 절을 10회 이상 방문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다시 찾아가고 싶은 절입니다. 금당과 같이 당나라 시대에 세워진 건물이 계속 이어져 와, 중국과 닮은 모습이 이 절을 매우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라에는 도쇼다이지 절과 같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중국과 관련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미카사야마 산을 바라보며 작년 중추절에 제가 읊은 시를 한 수 소개합니다. "중추절 밤, 미카사를 바라보며 월병을 먹고 있자니, 나카마로가 야마토를 그리워했듯 나도 장안이 그리워지는구나."



도쇼다이지 절 금당 기둥 옆에서

우호 제휴 10주년 기념 홈페이지

우호 제휴 10주년 기념 홈페이지에서는 충청남도와 산시성의 소개, 나라현 국제과에서 근무하는 한국, 중국 국제교류원이 나라현과 각 지역의 관련이 깊은 곳을 직접 취재하여 쓴 기사 등 기념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 또는 나라현 국제과 10주년을 검색!

Special Thanks

이번 취재에 협력해 주신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 중국 산시성과 관련이 깊은 곳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나노라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발행 : 2021년 9월

본지에 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8501)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 0742-27-8477 / FAX : 0742-22-1260